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lace Attachment to Childhood Home Scale*

이진숙(Jinsuk Lee)¹⁾

최병숙(Byungsook Choi)²⁾

한지현(Jihyeon Han)³⁾

한영숙(Youngsook Han)⁴⁾

ABSTRACT

This study developed the Place Attachment to Childhood Home Scale and evaluated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Samples consisted of 418 college students of four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based on retrospective questions about the childhood home. Factor analysis resulted in 5 dimensions of place attachment : affection, place identity, place rootedness, playfulness, and place dependence. Especially, playfulness was a unique finding.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five-factor structure. There were also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ub-factor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appeared high (Cronbach's $\alpha = .948$).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confirmed by significant correlations of the present scale with Attachment Scale to Place (Hess, 1997) and the 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Armsden & Greenberg, 1987)

Key Words :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 (Place Attachment to Childhood Home Scale), 타당도 (validity), 신뢰도 (reliability).

* 이 논문의 일부는 2009 EDRA 40 Conference(2009. 5. 30)에서 발표하였음.

¹⁾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²⁾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조교수

³⁾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⁴⁾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insuk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1ga Deokjin-dong Jeonju-city, Jeonbuk 561-765, Korea
E-mail : jslee0820@jbnu.ac.kr

I. 서 론

세계내 존재를 주장한 Heidegger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는 나를 둘러싼 환경 및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확인되고, 그러한 관계에 의해 주어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과 존재감을 형성해간다. 아동의 출생이후 세상과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양식은 부모/주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양육자와 자녀간의 지속적인 돌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정서적 연대감을 Bowlby (1982)는 애착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부모/ 주양육자와의 초기관계를 내면화하며, 이러한 관계양식은 이후 또래 관계와 기타 대인관계 등 보다 넓은 사회관계망으로 확장되어 나간다(Ainsworth, 1969; Bowlby, 1982). 초기 대인애착(attachment to person)이 이후 아동의 발달 및 생애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검증되어 왔다. 예컨대, 영아와 부모/주양육자 간의 안정 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Sroufe, Fox, & Pancake, 1983), 긍정적인 또래관계(LaFreniere & Sroufe, 1985)와 관련된 반면, 불안정 애착은 더 의존적이고 사회적 유능성과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licker, Englund, & Sroufe, 1992; Sroufe, 1983).

한편,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애착의 대상이 대인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천착해 왔다.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특정한 장소, 혹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서적 유대의 개념이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라는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 장소애착에 대한 이론 및 연구들은 1960년 이후 환경심리학 및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져왔으며 (Fried, 1963; Gans, 1962; Pronshansky, Ittersson,

& Rivlin, 1976), 1980년대말 이후 심리학뿐 아니라 공간행태학, 경영학, 레저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가 증가되어 왔다(Low & Altman, 1992; Stedman, 2002).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경험을 통해 ‘장소’와 어떤 연관을 갖게 되며, 개인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감상을 받게 된다 (김동근 · 이한울 · 안건혁, 2007). 즉 인간과 환경간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장소성(sense of place)’ 개념이 형성되며, 이에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지양식을 통해 특정한 형태의 정서, 혹은 감정이 형성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장소애착은 장소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으나(William & Roggenbuk, 1989), Low와 Altman(1992)은 장소애착을 개념화하고 이론으로써 주장하였다. 각 장소에는 장소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소애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소는 그 공간적 범위가 다양하다. 즉, 집, 지역사회, 공공장소, 도시, 자연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의 다양한 세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적 유대감인 장소애착은 인간의 생애주기의 각 발달단계, 혹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집단, 또는 과거와 현재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까지의 장소애착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연구는 가정환경과 같은 주거지보다는 지역사회, 공원(Kelly, 2008; Knez, 2005; Pretty, Chiputer, & Bramston, 2003), 휴식공간이나 자연환경(Kyle, Gracfe, & Manning, 2005; Moore & Scott, 2003; Williams & Vaske, 2003)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범주의 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드물게는 장소애착의 대상으로

집 혹은 가정이 연구되었다. 가정환경에 대한 장소애착을 탐구한 선행연구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환경보다는 대학생 부부 기숙사 혹은 정착민의 임시 주거지 그리고 주변의 이웃환경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로 성인의 장소애착을 탐구하였다(Billing, 2006; Harris, Brown, & Werner, 1996; 최열·임하경, 2005).

그러나 집(가정(home))은 인간에게 장소애착이 형성되는 가장 일차적인 물리적 환경의 단위이다. 집(가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가족원이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나. 즉, “집(가정)이라는 장소는 실존적 공간,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보호, 관심, 헌신의 장소이다……”(Feldman, 1999, p.184). 장소애착 이론가들에 의하면, 대인애착과 장소애착의 발달은 상호 관련된 과정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존재해왔다(Hess, 1997). 즉 애착의 과정은 인간관계 뿐 아니라 물리적 대상인 장소에 대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생이후 아동은 부모에 대한 대인애착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특정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서서히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첫 대인애착의 대상은 부모/주양육자이고 최초의 장소애착의 대상은 집(가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가정)은 한 개인의 대인애착 및 장소애착 경험을 위한 최초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소에 대한 개인의 관계는 전 생애를 통해 변화되며,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험은 이후의 발달 단계에 중요하다(Hess, 1998). 가정이 없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혼란수준이 높다는 연구(Bassuk, Rubin, & Lauriat, 1984; Molcar, 2006 재인용), 향수병이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감과 내적 통제감의 결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연구(Tognoli, 2003)들을 통해 볼 때, 어린 시기에 자신의 집(가정)에 대해 형성하

는 ‘아동기 장소애착’은 이후의 정체감 발달 및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편안함과 쉼을 제공하는 집(가정)이라는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거주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과 의미를 지니며, 특히 아동기에 자신의 집(가정)에 대해 형성한 독특한 정서적 경험은 그들의 존재의미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아동기 장소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아동기에 있어서 ‘집(가정)’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어떠하며,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의 과정 혹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소애착 개념은 단순하게는 한 개인이 물리적 공간에 대해 발달시키는 정서적 연대감(emotional bonding)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보다 복잡하고 독립적인 다양한 개념들이 통합되었기 때문에(Knez, 2005; Molcar, 2006; Moore & Scott, 2003; Stedman, 2002). 장소애착의 하위개념은 다양한 차원들이 통합되어 있다. 예컨대, 장소애착은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정서적인 애착, 사회적 유대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Harris et al, 1996; Jorgensen & Stedman, 2006; Kyle et al, 2004; Kyle et al, 2005; Williams & Vaske, 2003). 특히, 집(가정)에 대한 장소애착은 집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감정 및 활동들과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측정되고 있다(Harris et al, 1996).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장소애착 개념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거주공간(집)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예 : Harris et al, 1996; Billing, 2006; Molcar, 2006; 최열·임하경, 2004), 아동기의 집에 대한

장소애착 개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기 장소애착 개념을 측정할 일 연구(Hess, 1997)에 의하면, 아동기 장소애착을 이상화(Idealization), 슬픔(Mourning), 애정(Affectionate), 회피(D dismissal), 초월성(Transcendence), 고통(Ambivalence)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하고, 애착 개념에 근거하여 6개 문항으로 아동기 장소애착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아동의 일차적 환경인 집에 대한 다양한 하위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장소애착 개념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아동기에 있어서 집(가정)에 대한 장소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본 척도는 아동기 경험에 대한 회상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주거지/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여 관련문항을 추출한 다음 그에 근거하여 다차원적인 아동기 장소애착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시절의 집(가정)에 대한 회상에 기초하여 아동기 집에 대한 정서와 경험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던, 거주자와 그들의 거주지(집)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인 장소애착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J시와 근교에 소재

한 4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18명이었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골고루 선정되도록 아동학 및 주거/건축학 전공 대학생을 포함하여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근거는 먼저 본 척도가 아동기 경험에 대한 회상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어야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 이후에 해당하는 추상적 조작기에는 논리적 추상적 사고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교화가 가능하며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후부터 아동기 장소애착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회상이 가능한 성인기 초반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은 148명, 여학생은 270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학생 22.4세, 여학생 21.6세였다. 본 조사에서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와 부모와의 애착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N=418)

변 인		빈도 (%)
성별	남	148 (35.4)
	여	270 (64.6)
연령	20세 미만	22 (5.3)
	20세	96 (23.0)
	21세	73 (17.5)
	22세	96 (23.0)
	23세	55 (13.2)
	24세 이상	76 (18.2)
학년	1학년	114 (27.3)
	2학년	90 (21.5)
	3학년	130 (31.3)
	4학년	84 (20.1)

위하여 추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1, 2학년 대학생 43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개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는 아동기에 자신이 거주했던 집에 대한 응답자의 회고에 근거하여 집에 대한 정서적 지각, 느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장소애착의 범위는 거주지로부터 지역사회, 국가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느끼는 대상이 주거지역이므로(최열·임하경, 2005; Feldman, 1990; Bonaiuto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장소애착 범위를 집 또는 가정으로 한정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주로 성인기 장소애착 도구를 고찰하여 일련의 문항들을 추출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차원적인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장소애착 도구를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문항을 추출한 다음 이를 다시 아동기 집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서 등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성인기 장소애착 도구의 고찰) : 국내외 선행연구에 제시된 성인기 장소애착 도구들의 고찰을 통해 각 문헌에서 제시된 문항들을 모두 추출하였다. 장소애착 문항 추출을 위해 참고한 주요 선행연구는 Stedman(2002), Kyle, Mowen과 Tarrant(2004), Harris, Brown과 Werner(1996), Molcar(2006), McAndrew(1998) 등이다¹⁾.

1) Stedman(2002) : 한 개인의 특정장소에 대한 동일시 정도를 측정. 하위요인은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으로 구성되며 총 14개 문항.-Kyle, Mowen과 Tarrant(2004) : 사회적 유대,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등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4개 문항.-Harris, Brown과 Werner(1996) : 애착

2단계(문항 선별과정) : 선행연구를 통해 모아진 전체 문항들을 유사한 문항끼리 묶고, 각 문항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중복되는 문항 혹은 의미가 모호한 문항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 선별된 문항은 총 37개 문항이었다.

3단계(아동기경험에 기초한 회고식으로 수정) : 위에서 최종 추출된 문항들을 다시 읽어가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초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회고식으로 진술하는 형태로 수정하였다. 즉, 현재의 집에 대한 진술문을 아동기 집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서 등에 기초하여 “내가 어렸을 때...~했다”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컨대, ‘집에 들어설 때면 항상 집이 나를 반기는 느낌을 받는다.’는 ‘(내가 어렸을 때...) 집은 항상 나를 반겨주던 느낌이었다’로 수정하였으며, ‘집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는 ‘어린 시절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로 수정하였다. 또한 ‘취미활동을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이다.’는 ‘(내가 어렸을 때...) 놀이를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였다.’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과정에서 아동기 장소애착 문항으로 그 의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2개 문항(장소정체감 관련 문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5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어렸을 때(12살 이하) 살았던 집에 대한 회상에 기초하여 집에 관련된 정서와 경험이 어떠한지를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결과(outcomes) 및 과정(process)을 평가. 하위요인은 가정 경험, 장소착근성, 장소정체성으로 구성되며 총 23개 문항.-Molcar(2006), McAndrew(1998)의 척도 중 12개 문항 참조.

2) Childhood Place-Attachment Questionnaire (CPAQ)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외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Chawla(1992)의 척도를 Hess(1997)가 수정·보완한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Childhood Place-Attachment Questionnaire : CPAQ)를 사용하였다. Chawla(1992)는 원래 성인기 애착의 4개 유형분류에 근거하여 장소애착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이 특정 장소애착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Hess(1997)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6개 문항으로 문항을 재구성하고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한편, CAPQ는 원래 인도의 Mussoorie 지역에서 아동기를 보냈던 성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이 아동기를 보냈던 Mussoorie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를 질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Mussoorie 지역을 응답자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으로 수정하고, 어렸을 때(12세 이하) 살았던 집이나 동네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아동기에 자신이 살았던 장소(집)에 대한 이상화, 슬픔, 애정, 망각, 초월성, 고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문항 예 :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에 대해 향수를 느낀다. 그 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부모와의 애착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의 애착척도를 사용하여 장소애착과 대인애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청년기 부모와 또래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수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도록 유은희(199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 척도는 각각 16문항으로 문항 내용은 동일하며, 부모의 반응성, 근접 가능성에 대한 자녀의 신뢰, 자녀의 정서상태에 대한 민감성 및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되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감정을 평가한다. 각 문항 형식은 5점 리커트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하며,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5문항)은 점수의 측정에서 역산되었다. 개인의 애착 점수는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와의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부 애착 차원은 Cronbach's $\alpha=.947$, 모 애착 차원은 Cronbach's $\alpha=.946$ 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연구절차

개발된 척도를 가지고 2008년 4월에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소요시간, 문항의 적절성, 응답방식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최종질문지로 확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장소애착에 대한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준거 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아동기 대인애착의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먼저 담당교수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으며 협조 의사를 밝힌 수업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배부된 질문지 500부 중 회수된 424부에서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418부가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추후연구로 장소애착척도와 대인애착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와 부모와의 애착척도로 구성하였다. 43부가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AMOS 1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준거관련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척도와 다른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구성타당도

아동기 집(가정)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 구조 모델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 하위 영역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를 위해 최종 측정도구로 구성된 35문항을 사용하여 418명의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KMO 수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KMO측도값은 .9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9735.79($df=595$)로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소애착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하위요인이 3개(최열·임하경, 2004; Harris et al., 1996; Stedman, 2002), 4개(Kyle et al., 2004) 또는 6개(Hess, 1997)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이들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6개 문항을 각 하위요인으로 보고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한 요인수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주성분분석을 통해 고유값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지정하였다.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예비 35문항들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0 이상인 요인이 5개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3.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방법에 있어서 추정방식은 주축요인추출방법이었으며 요인 수를 5개로 지정하고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부하량이 낮은 문항(0.5이하)과 부하량이 0.5 이상 중 다른 요인에서 0.45 이상의 중복 요인값을 가질 경우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10번 문항의 경우 7번 문항과 중복이 되며 10번 문항만 반대방향으로 적용되므로 질문지 작성시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와같은 문항제거 기준에 따라 12개 문항(2, 10, 17, 18, 19, 23, 24, 25, 26,

<표 2>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4.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끼도록 만들었다.	.754	.218	.177	.133	.094
22. 나는 집에서 매우 안정감을 느꼈다.	.732	.178	.226	.232	.176
1. 우리 집은 내가 편히 쉴 수 있었던 장소였다.	.723	.142	.225	.136	.247
3. 집은 항상 나를 반겨주던 느낌이었다.	.709	.157	.191	.125	.261
21. 우리 집은 내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껴졌다.	.663	.131	.238	.385	.175
15. 우리 집은 머무르고 싶은 곳이었다.	.661	.206	.198	.282	.333
12. 오랫동안 집을 떠났을 때, 정말 집이 그리웠다.	.562	.213	.304	.175	.136
27. 거주하는 곳으로 우리 집에 만족했다.	.551	.296	.286	.368	-.065
2. 나는 집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좋아했다.	.546	.079	.142	.172	.495
18. 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461	.360	.167	.444	.296
25. 우리 집은 모든 것을 잊고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	.430	.375	.201	.345	.242
26. 집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나의 생활을 조절할 수 있었다.	.393	.317	.140	.331	.249
32. 어릴 적 우리 집의 장식은 나를 나타냈다.	.106	.781	.138	.198	.278
34.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은 집안의 역사를 갖는 것이었다.	.192	.771	.104	.071	.111
33. 어릴 적 우리 집의 장식은 가족을 생각나게 했다.	.243	.760	.187	.143	.110
17.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표현했다.	.185	.602	.165	.069	.507
35. 어릴 적 집에서 했던 일들은 나의 한 부분이었다.	.382	.480	.282	.298	-.023
24. 나는 집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374	.470	.166	.254	.383
19. 우리 집은 내 존재감의 중요한 일부이었다.	.423	.427	.262	.269	.313
9. 나는 어릴 적 살던 집과 동네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234	.153	.748	.185	.208
8. 어릴 적 살던 집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170	.200	.727	.257	.247
7.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261	.233	.719	.251	.167
5. 이사를 했다면 우리 집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352	.200	.688	.057	.235
6. 이사를 해야만 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116	.225	.640	.072	.303
10. 나는 어릴 적 살던 집과 동네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272	.037	-.591	-.098	.262
29. 놀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 우리 집이 좋았다.	.166	.266	.153	.770	.227
20. 우리 집에서 놀이를 즐겼다.	.312	.061	.139	.690	.277
28. 놀이를 위한 최상의 장소는 우리 집과 동네였다.	.350	.076	.234	.688	.046
31. 다른 어떤 곳 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것이 좋았다.	.391	.363	.159	.473	.212
30.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집 이외 다른 어느 곳도 생각할 수 없었다.	-.086	.427	.296	.433	.431
23. 친구들을 초대하는 곳으로 우리 집이 좋았다.	.302	.386	.183	.424	.154
11. 집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고 느꼈다.	.279	.342	.184	.073	.667
14. 우리 집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였다.	.352	.203	.131	.359	.621
16.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 집이 최상이었으며, 다른 어떤 곳도 우리 집과 비교할 수 없다.	.334	.229	.169	.303	.608
13. 어린 시절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	.295	.165	.284	.308	.549
고유값	4.95	2.57	3.73	2.75	2.39
설명변량(%)	20.64	10.74	15.57	11.49	9.99

30, 31, 35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5개 요인구조의 23문항을 확정하였으며, 23문항에 대해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변

량의 68.43%의 설명량을 나타냈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 요인구조계수 행렬 및 요인설명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내 문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명칭을 부여 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고유값이 4.95이며, 전체 변량의 20.6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8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754에서 .551까지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집에 대한 편안함, 안정감, 따뜻함, 그리움, 환영받는 느낌 등 집에 대한 정서와 관련된 문항들로 추출되어 ‘정서(Affection)’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고유값이 2.57이며, 전체 변량의 10.74%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3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781에서 .760까지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요인 2는 집안의 장식과 물건들이 나를 나타내고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지, 집안의 역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장소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2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이라고 명명하였다. Proshansky 등(1983)는 자기정체성의 발달이 단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데 그치지 않고, 사물이나 공간, 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의식, 무의식적 사고, 믿음, 선호, 감정, 가치, 목적, 행동경향 등의 복합적 양식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정의되는 것을 장소정체성으로 정의하였다.

요인 3은 고유값이 3.73이며, 전체 변량의 15.5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5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748에서 .591까지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이사하고 싶지 않은 감정, 정서적인 연결감, 소속감 등 집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출되어 ‘장소착근성(Place Rootedness)’이라고 명명하였다. Shumaker와 Taylor(1983)은 문화적 소속감, 조상이나 고향에 대한 애착 등을 장소착근성이라고 정의한다. 장소착근성은 한 장소에 오랜 기간 거주할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뿌리의식을 말한다.

요인 4는 고유값이 2.75이며, 전체 변량의 11.49%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3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770에서 .688까지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4는 집에서 놀이를 즐겼는지, 놀이를 위한 최상의 공간이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집에서의 놀이와 관련되어 있어서 ‘놀이성(Playfulness)’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고유값이 2.39이며, 전체 변량의 9.99%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들 4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은 .667에서 .549까지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최상의 장소, 머무르고 싶은 곳, 행복한 곳 등 집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존성 높게 이용하는지에 관련된 문항들로 추출되어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이라고 명명하였다. Williams와 Roggenbuk(1989)에 따르면, 장소의존성은 그 장소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충분한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5개의 하위요인이 구조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제시했듯이 카이제곱 값은 719.89($df=242$, $p<.001$)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의 평가에 있어서 카이제곱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자유도와 독립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잘 반영하는 지수로서 TLI, CFI, RMR, RMSEA를 살펴 보았다. TLI과 CFI는 0.9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며, RMR은 0.05 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RMSEA는 통상 0.06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상당히 좋은 합치도로 보고, 0.08 이하

<표 3>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표준화추정치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추출
정 서					0.925	0.609
문항 1	1.008	0.069	14.615	0.755		
문항 3	1.001	0.069	14.590	0.754		
문항 4	1.024	0.071	14.427	0.745		
문항 12	0.982	0.075	13.148	0.678		
문항 15	1.130	0.072	15.764	0.818		
문항 21	1.103	0.071	15.595	0.808		
문항 22	1.066	0.068	15.635	0.811		
문항 27	1.000	-	-	0.700		
장소정체성					0.825	0.613
문항 32	1.056	0.070	15.076	0.812		
문항 33	1.169	0.075	15.519	0.852		
문항 34	1.000	-	-	0.723		
장소착근성					0.866	0.565
문항 5	0.918	0.055	16.611	0.763		
문항 6	0.797	0.057	14.011	0.663		
문항 7	0.903	0.048	18.686	0.840		
문항 8	0.968	0.053	18.174	0.821		
문항 9	1.000	-	-	0.792		
놀이성					0.809	0.585
문항 20	0.926	0.065	14.967	0.749		
문항 28	0.954	0.062	14.762	0.739		
문항 29	1.000	-	-	0.790		
장소의존성					0.840	0.568
문항 11	0.861	0.060	14.326	0.703		
문항 13	1.024	0.066	15.488	0.752		
문항 14	1.003	0.060	16.708	0.805		
문항 16	1.000	-	-	0.766		

$\chi^2=719.89(p=0.000)$, $df=242$, $\chi^2/df=2.975$,
 TLI=0.902, CFI=0.921, RMR=0.049, RMSEA=0.069

인 경우 괜찮은 합치도로 판정된다. 본 연구에서 는 TLI는 0.902, CFI는 0.921로 적합하며, RMR 은 0.049, RMSEA는 0.069로 모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인적재량의 경우 표준화 추정치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0.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요인 간 공

분산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 대한 p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본 척도의 측정 모형이 단일차원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5요인 구조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요인간 공분산 검정 결과

요 인	공분산	표준오차	C.R.	p
정 서 <--> 장소착근성	.448	.049	9.185	.00
정 서 <--> 장소정체성	.310	.039	7.893	.00
정 서 <--> 장소의존성	.427	.045	9.439	.00
놀이성 <--> 정 서	.402	.043	9.260	.00
놀이성 <--> 장소정체성	.421	.051	8.176	.00
장소착근성 <--> 장소의존성	.515	.055	9.363	.00
놀이성 <--> 장소착근성	.457	.052	8.786	.00
장소정체성 <--> 장소의존성	.424	.048	8.751	.00
놀이성 <--> 장소정체성	.341	.044	7.720	.00
놀이성 <--> 장소의존성	.481	.050	9.644	.00

3) 상관분석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각 하위요인 간에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하위요인간 상관계수가 .453에서 .696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애착 척도 전체와 하위요인간에 상관계수도 .710에서 .898로 높게 나타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항-전체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640에서 .777로 나타나 각 문항과 전체 장소애착점수 간에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신뢰도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8문항)는 .916, 장소정체성(3문항)은 .837, 장소착근성(5문항)은 .881, 놀이성(3문항)은 .802, 장소의존성(4문항)은 .841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의 측정모델의 신뢰도 평가는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신뢰도가 0.8 이상이었으며 평균분산추출도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5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척도는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

하위요인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	놀이성	장소의존성	장소애착전체
정 서	1					
장소정체성	.516(**)	1				
장소착근성	.654(**)	.499(**)	1			
놀이성	.659(**)	.453(**)	.534(**)	1		
장소의존성	.696(**)	.575(**)	.629(**)	.634(**)	1	
장소애착 전체	.898(**)	.710(**)	.821(**)	.772(**)	.860(**)	1

*** $p < .001$

<표 6>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정 서	8	.916
장소정체성	3	.837
장소착근성	5	.881
놀이성	3	.802
장소의존성	4	.841
장소애착 전체	23	.948

3.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

1)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와 CPAQ와의 상관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척도에서 추출된 5개 하위요인과 Hess(1997)의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Childhood Place Attachment Questionnaire : CPAQ)의 각 개별문항(6문항)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원래 Hess(1997, p.65)는 장소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6문항을 사용하였는데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문항은 이상

화, 슬픔, 애정, 망각, 초월성,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Hess(1997)가 제시한 6개의 문항과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8>, 문항 1. 이상화는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 놀이성, 장소의존성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3 \sim .59, p<.001$), 2. 슬픔은 장소정체성($r=.17$), 장소착근성($r=.29$), 장소의존성($r=.18$) 하위영역간과 약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정서 및 놀이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애정은 이상화와 마찬가지로 장소애착의 전체 하위영역과 $r=.32 \sim .54$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4. 회피는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인 정서, 놀이성, 장소의존성과 각각 $r=-.12 \sim -.40$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5. 초월성 문항은 장소애착의 전체 하위영역과 $r=.37 \sim .64$ 의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6. 고통은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영역에서 $r=-.13, -.19, -.32$ 의 약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CPAQ)의 문항내용

문 항	범 주
1.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에 대해 향수를 느낀다. 그 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나는 어려서 살던 집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상화 (Idealization)
2.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이 정말 그립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때때로 상처가 되는 것도 있다.	슬픔 (Mourning)
3. 어떤 장소를 가면 어려서 살던 우리 집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면 편안해진다.	애정 (Affectionate)
4. 어릴 적 살던 집은 단지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낸 한 장소에 불과했다. 그리고 쉽게 그 집을 떠났다.	회피, 망각 (Dismissal)
5. 나는 어릴 적 살던 동네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다른 장소에서도 이런 연결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집은 나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초월성 (Transcendence)
6. 나는 어릴 적 살던 집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집을 생각하면 매우 힘든 기억이 떠오른다.	고통, 양가적 (Painful, Ambivalence)

<표 8>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와 CPAQ와의 상관

CAPQ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척도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	놀이성	장소의존성	총점
이상화	.41***	.36***	.59***	.33***	.43***	.53***
슬픔	.05	.17***	.29***	.08	.15**	.18***
애정	.39***	.32***	.54***	.32***	.38***	.49***
회피	-.29***	-.12*	-.40***	-.20***	-.19***	-.32***
초월성	.48***	.39***	.64***	.37***	.47***	.59***
고통	-.32***	.02	-.08	-.19***	-.13*	-.20***

* $p < .05$ ** $p < .01$ *** $p < .001$

이상의 결과를 보면, Hess(1997)에 의해 긍정적인 아동기 장소애착 문항으로 제시된 1. 이상화, 3. 애정, 5. 초월성 문항은 본 연구에서 추출된 장소애착 전체 하위요인과 $r = .30$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아동기 장소애착 문항인 4. 회피, 6. 고통 문항의 경우 약하기는 하지만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일관된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슬픔 문항의 경우 정서, 놀이성과 상관이 없고 다른 하위요인과는 약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척도는 모애착($r = .43, p < .001$), 부애착($r = .37, p < .0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모애착은 정서($r = .37$), 장소정체성($r = .33$), 놀이성($r = .44$)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장소착근성 및 장소의존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애착의 경우에는 정서($r = .35$), 놀이성($r = .37$)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애착과 장소애착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와 부모애착 척도와의 상관

애착에 있어서 장소애착과 대인애착간의 관련성을 가정하고,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애착 척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소애착 개념에 관한 문헌고찰 및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선별된 문

<표 9>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와 부모애착 척도와의 상관

부모애착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척도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	놀이성	장소의존성	총점
모애착	.37*	.33*	.23	.44**	.27	.43**
부애착	.35*	.23	.25	.37*	.17	.37*

* $p < .05$ ** $p < .01$

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개의 요인구조를 추출하고,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Hess (1997)의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와 부모애착 척도를 통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연구들을 통해 장소애착의 개념 정의와 구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추출한 37문항 중 아동기 경험을 회고하여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문항을 제외하고 총 35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35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5개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문항제거기준을 정하여 선별한 결과 23문항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5개의 요인에 대해 구조적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5요인 구조 모형은 타당함이 입증되었다.

추출된 5개 요인들의 내용은 정서(affection),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착근성(place rootedness), 놀이성(playfulness),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척도들의 하위요인들과 비교해보면 놀이성을 제외하고는 하위요인의 내용 특성들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에 대한 장소애착은 연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장소정체성, 정서 또는 착근성, 장소의존성 또는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Harris 등 (1996), Stedman(2002), Molcar(2006)는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집 외에 휴식장소에

대한 장소애착을 측정한 연구(Kyle et al., 2004; Stedman, 2002)에서도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정서적 애착과 같은 여러 차원들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명명된 요인의 특성들은 놀이성을 제외하고는 하위요인의 내용 특성들이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놀이성이 추출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다른 장소애착 관련 척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인데, 아동기 집에 대한 애착 척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놀이장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그간 대인애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와 아동과의 놀이는 상호작용의 증진 및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놀이는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유대감을 강화한다(Ginsberg, 2007). 이렇듯 놀이는 대인애착에서 뿐만 아니라 장소애착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놀이가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환경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의 총점 및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울러 하위 영역 간에서도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도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사 도구의 영역들이 같은 변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5개의 하위요인인 정서, 장소정체성, 장소착근성, 놀이성, 장소의존성으로 구성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아동기 장소애착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948로 양호하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또한 .802~.916으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셋째,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외적 준거로 Hess (1997)의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와 부모와의 애착척도와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Hess(1997)의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와와의 상관은 하위요인별로 그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 긍정적인 아동기 장소애착 문항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부정적인 아동기 장소애착 문항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적 일관된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Hess(1997)의 아동기 장소애착척도가 단일 문항으로 각 영역을 살펴보는 6문항으로 되어있어서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문항과의 일관된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기 장소애착척도와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며 아울러 장소애착이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측정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대인애착인 부모애착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애착이 장소애착 하위요인 중 정서와 놀이성 요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장소애착 하위영역 중 정서와 놀이성 요인이 정체성, 착근성, 의존성 등 타 요인에 비해 대인애착 관련성이 높은 영역임을 보여준다. 즉 집이라는 장소가 지니는 정서적인 편안함과 행복감,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와 놀이경험이 성인기의 대인애착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양육자 뿐만 아니라 양육환경 특히 물리적인 공간 역시 중요

함을 시사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정서적인 편안함과 행복감, 즐거운 놀이경험을 가진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 한 개인의 삶의 복지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의 생애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동기에 자신의 집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로 생각된다. 가정(home)이 없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혼란수준이 높다는 연구(Bassuk, Rubin, & Lauriat, 1984; Molcar, 2006 재인용)는 이를 반증한다.

아동기 장소애착 개념은 아동·청소년기의 물리적 환경이 지니는 의미,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아동기 장소경험이 이후의 심리적 발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척도는 이러한 후속 연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아동기 집에 대한 장소애착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성인들의 아동기에 대한 장소애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연구대상을 대학생 외의 초기성인기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소애착이 대상 집단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장소애착과 대인애착과의 관련성은 탐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아동기 집의 의미와 이후 대인애착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장소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 집(가정)에 대한 장소애착 측정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아동기에 있어서 집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어떠한지 이러한 거주 공간에 대한 정서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근 · 이한울 · 안건혁(2007). 주거지에 대한 장소 애착 개념 고찰.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정기학술대회, 623-635.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 열 · 임하경(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40(2), 53-64.
- Ainsworth, M.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illing, M. (2006). Is my home my castle? Place attachment, risk perception, and religious faith. *Environment and Behavior*, 38(2), 248-265.
- Bonaiuto, M., Fornara, F., & Bonnes, M. (2004). Scales on perceived urban residential quality indicators and neighbourhood attachment : A confirmatory analysis of factorial structures, IAPS 18 Conference Proceedings, 7-9 July 2004.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Chawla, L. (1992). Childhood place attachment, In I. Altman & Low(eds). *Place attachment*. New York : Plenum Press, 63-86.
- Elicker, J. Englund, B.,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D. Parke & G.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pp.77-106). Hillsdale, N.J. : Erlbaum.
- Feldman, R. M. (1990). Settlement-identity : Psychological bonds with home places in a mobile socie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273-281.
- Ginsbe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 182-191.
- Harris, P. B., Brown, B. B., & Werner, C. M. (1996). Privacy regulation and place attachment : Predicting attachment to a student family housing facil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87-301.
- Hay, R. (1998). Sense of place in developmental context.(A rooted sense of plac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 5-29.
- Heidegger, M. (1992). *Being and Time*. Seoul, Korea : Time and Space Press.
- Hess, K. A. (1997). Attachment to childhood pla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A.
- Jorgensen, B. S., & Stedman, R. C. (2006). A compar-

- tive analysis of predictors of place dimensions : Attachment to dependence on, and identification with lakeshore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79, 316-327.
- Kampen, A.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in middle childhoo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Kelly, G. (2008). Nonpermanent residents, place attachment, and "Sea Chang" communities. *Environment and Behavior*, 40(4), 575-594.
- Knez, I. (2005). Attachment and identity as related to a place and its perceived climat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 207-218.
- Kyle, G. T., Mowen, A. J., & Tarrant, M. (2004). Linking place preferences with place meaning :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motivation and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 439-454.
- Kyle, G., Gracfe, A., & Manning, R. (2005). Testing the dimensionality of place attachment in recreational settings. *Environment and Behavior*, 37(2), 153-177.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ow, S. M.,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 A conceptual inquiry. In I. Altma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pp.1-12). New York, NY : Plenum Press.
- McAndrew, F. T. (1998). The measurement of 'Rootedness' and the prediction of attachment to home-town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8, 409-417.
- Molcar, C. C. (2006). The relationship of place attachment to spiritual well-being across the lifespan. Doctoral dissertation. Seattle Pacific University, WA.
- Moore, R. L., & Scott, D. (2003). Place attachment and context : comparing a park and a trail within. *Forest Science*, 49(6), 877-884.
- Pretty, G. H., Chiputer, H. M., & Bramston, P. (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 The discriminating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273-287.
- Proshansky, H. M., Fabian, A. K., & Kaminoff, R. (1983). Place identity :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 Shumaker, S. A., & Taylor, R B. (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place relationships : a model of attachment to a place", In N. Feimer & E. Galler(Eds.), *Environmental Psychology : Directions and Perspectives*, New York : Praeger.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pp.41-83)*. Hillsdale, NJ : Erlbaum.
- Sroufe, L. A., Fox, N. E., & Pancake, V. R. (1983). Attachment and dependency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4, 1615-1627.
- Stedman, R.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 Behavior*, 34, 561-581.
- Tognoli, J. (2003). Leaving home : Homesickness, place attachment, and transition among residenc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8, 35-48.
- Wei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eson, E. A. (1999). The nat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J.

- Cassidy & P. R. Shaver(Eds.) *The Handbook of Attachment*(pp.68-88). New York : Guilford.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 Williams, D. R., & Roggenbu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 Some preliminary results. In L. H. McAvoy, & D. Howard(Eds), *Abstract of 1989 Leisure Research Symposium*(p.32). Arlington, VA :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2009년 8월 31일 투고, 2009년 11월 9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